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H. W. Byrne 저 /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영걸

I.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며 신앙과 교육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전문분야의 지식습득이나 종사를 특별히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명시키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만연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의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자기 위주적 세계관과 신앙인들의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혼동된 세계관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 주된 책임은 인재양성의 주역을 담당하는 교육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사회 각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므로 구속사업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일

끈을 길러내야 할 신앙인 교육자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며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서를 접하면서 이 책의 성경중심적인 “새로운 방법들”이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제시한다고 느꼈으며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줄곧 일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2년 남짓 기독교대학에서 사역하고 있는 햇병아리로서 저자의 책을 평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임을 우선 고백하고 단지 읽는 중 새롭거나 유익하다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서의 저자는 일반교육과 기독교 교육철학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고 아주 상세히 그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현재 기독교 교육이 당면하는 문제점이나 비판을 수용하며 그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성경적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분야, 모든 수준 즉 교회교육(유년주일학교부터 성인교육)이나 기독교 학교교육(기독교 국민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수중심적 기독교 교육철학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각 전공분야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실제적인 교육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I.

이 책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단원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철학을 다루고 있으며 성경적 신앙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다. 저자는 지난 세기 사조의 변천을 소개하면서 현재 일반교육이 당면하는 문제점들과 기존 기독교 교육이 제기하는 의문을 지적한다. 특히 기존 기독교 교육이 고대 회랍과 로마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순수 기독교 교육이 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 전반이 예수 중심적이 되어야 함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저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이 되시며 그의 계시에 의해 우리 삶의

생활 철학이 형성되며, 교육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독교 철학이란 기독교인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기독교인의 마음은 그의 신앙적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경험의 원천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며 초자연적 경험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근본 실체를 이룸을 설명한다.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며 타락 이후 죄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과 성령의 세례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교육과는 달리 기독교 교육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임을 지적하며 교육목적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당면한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할 자질 있는 일꾼을 키우는데 있고 궁극 목표는 다가 올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함을 말한다.

즉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의 계시가 교육 전반에 핵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 중 자연을 통한 계시(General), 성경을 통한 계시(Special)와 예수님을 통한 계시(Personal)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랍·로마 전통의 영향이나 자연·실존주의의 요소를 지닌 기존 기독교 교육체제의 수정이 필요하며 모든 과정이 성경중심적이어야 하며 성경이 차지하는 기독교 교육의 위치가 일반적 지침서 정도가 아니라 성경 가르침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과내용이 되며 그것이 전문 교과내용과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성경이 모든 교과과목을 상호연관시키고 다른 과목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신학과목을 공통 교양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기독교 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으며 참 기독교 교육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중심 교육이 모든 수준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경 그 자체가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잣대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모든 교육원칙이 기독교 교육

자들로 하여금 기존 문화로부터 후퇴나 거부 또는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 효과적으로 기존 문화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주지시킨다.

제2단원에서는 기독교 교육철학의 적용, 즉 교육 전반에 대해 토론하며 목표, 사제관계, 교육과정, 방법, 학제 등을 성경적으로 조명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들은 매우 실제적이며, 가장 원천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들로부터 주일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에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단원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교범과 같은 성격을 지닌 유용한 단원으로 간주된다.

일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존방법의 획득과 자아발견에 중점을 두는 반면 기독교 교육의 시발점은 개인의 구속완성에 있으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형상의 재창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며 모든 교과과목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또 이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그 교육의 열매임을 시사한다. 기독교 교육을 단지 문화명령(창 1:28)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저자의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던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것이다. 비슷한 예로 노아와 야곱에게 같은 명령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신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합의 관계를 이룬 후에만 그 명령이 의미를 가지며 이기적이거나 하나님께 반항적이지 않은, 빛나가지 않은 모습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저하시키는 의미를 절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능력있는 구속 사업을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급속한 주변 변화에 무비판적 수용태도는 경계해야 하며 자칫 이 경향이 기독교 교육을 세속화 시키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호연관 관계에 있으며 선생의 역할은 성령의 도움으로 학생을 더욱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성숙시키며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인도하는데 있음을 말한다. 즉 선생의 근본 기능은 그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의 태도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authoritative) 입장에 있어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선생들은 항상 성령과 동역자의 위치에 있음을 주지시킨다.

교과과정 역시 예수중심적이어야 하며 전도, 교육, 예배, 친교, 봉사 등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죄로 인해 인간심리 속에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를 자각시키고 회복으로 인도하는 노력은 기독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학생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 계획을 수궁하고 받아들여 그 계획 아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의 초점이 되는 학생은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인간의 운명이 세상 밖에까지 지속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교육이 가지는 교육목적이 사회적응과 재건에 있는데 반해,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학생이 지니는 주 가치는 예수님의 권위의 인정과 증거에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과정의 목적은 세상의 문화 안에서 그 자리를 매꾸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증거되게 하며 주위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7)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교육방법 역시 성령과 함께 일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며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육기관의 객관적 관계와 하나님과 학생 간의 주관적 관계에 있는 비이성적 차원을 이성적 단계로 올려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들과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제시한다.

교육체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이 엄밀히 2차적 교육임을 말한다. 또한 기독교 대학이 자연주의적 영향의 유입에 경종을 울리며 세속주의와 자연주의의 강한 물결에 대항할 수 있는 복음적 기독교 인재의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체제의 수정이나 “복음적” 기독교대학을 주장한다.

제 3단원에서는 어떻게 모든 분야에 관한 진리를 통합 구성하며 해당수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설명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한 각 분야의 교육 범주를 정리해 놓고 있다. 앞의 두 단원에서 제시한 성경중심 교육원칙을 구체적으로 각 전공분야에 적용하였다. 크게 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어학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과목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간략한 참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III.

현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를 예로 보면 학사 전반의 분위기가 복음적이며 저자가 제시하는 기독교 교육 구상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갖추어진 좋은 환경에서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 의식과 그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헌신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교육의 성과는 결정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방법은 한 개인의 기발한 사상의 전개라기보다 성경에 원칙을 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모든 학문연구는 하나님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통합, 분석되어야 한다는 절대진리의 재인식, 해석 및 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해당 교육기관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있게 적용, 발전되는가의 여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관련분야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증거해 보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의 본을 받아 맡겨진 분야에서 삶 전체를 주의 뜻에 합당한 제자 양육에 투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 도우실 것이요 그가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